

담당 부서: 주택실 주택정책과

주택정책과장	사창훈	02-2133-7010
주거안심사업팀장	김경란	02-2133-7988
관련 누리집 (서울주거포털)	housing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sh01_070701	

사진 없음 ☐ 사진 있음 ☒ 쪽수 : 4쪽

"반지하·노후 가구 '희망의 집수리' 신청하세요"... 서울시, 7.1부터 하반기 모집

-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반지하 등 350가구 모집...7.1.(화)~31.(목) 동주민센터 신청
- 벽지·장판 교체, 단열, 방수 등 18종 지원...가구당 250만원 지원, 9월부터 순차적 수리
- 시, 지난해 '희망의 집수리'로 1,033가구(누적 21,486가구) 지원...만족도 90.2% 기록

- ☐
 서울시는 노후·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취약 가구에 최대 250만 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'희망의 집수리' 모집에 나선다.
- ☐
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'희망의 집수리'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350가구를 7월부터 모집한다. 올해 총 1천 가구 지원을 목표로, 상반기에는 650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했다.
- ☐
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7.1.(화)부터 7.31.(목)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.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가구이다.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중 반지하,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가 최종 선정된다.

- 자가일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,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. 또한, 「주택법」상 '주택'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,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.
- '희망의 집수리'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.

《 2025년 기준중위소득 60% 》

(단위: 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중위소득	2,392,013	3,932,658	5,025,353	6,097,773	7,108,192	8,064,805
중위소득 60%	1,435,208	2,359,595	3,015,212	3,658,664	4,264,915	4,838,883

※ 기준중위소득: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

- 집수리 항목은 도배·장판·창호부터 차수판·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에 달한다. 특히 고령 가구 비율이 높아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수리에 중점을 둔다.

《 희망의 집수리 지원 공종 》

도배, 장판, 단열, 도어, 방수, 처마, 창호, 싱크대, 타일, 천장 보수, 위생기구(세면대·양변기), 페인트, 전기 작업(등기구 교체 등), 제습기, 곰팡이 제거, 환풍기, 안전시설(화재·침수·가스누설 경보기·차수판 등), 보일러

- 선정된 가구는 8월 심사를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. 서울시는 공사 완료 후에 11월부터 수혜 가구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, 결과는 다음 해 사업 품질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.

○ 사업 만족도는 2023년 87.9%에서 '24년 90.2%로 향상돼 지속적인 개선과 현장 의견 반영이 긍정적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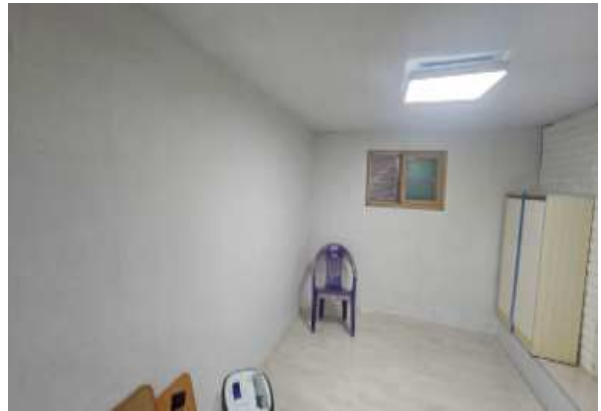
□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“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금까지 2만 1천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해왔으며,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.”며 “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.”고 말했다.

붙임

'25년 상반기 희망의 집수리사업 지원 전후 사진



→



〈도배·장판〉



→



〈창호〉



→



〈싱크대〉



→



〈타일 공사〉